

제18호·2016년 8월 10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실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극동러시아 벙커유 수요 급감

- 선박용 연료로 잘 알려진 벙커유는 경유와 혼합비율에 따라, Bunker-A, Bunker-B, Bunker-C로 나뉘나, 보통 벙커유라 함은 벙커 C유를 의미함
- 이런 벙커유의 수요가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
 - 2014년 기준, 러시아의 총 벙커유 수요는 약 1,700만 톤으로 이 중 47%에 달하는 8백만 톤 정도가 극동러시아에서 판매되었음
-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극동러시아의 벙커유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였음
 -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지녔던 극동러시아 벙커유를 구매하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추가 거리를 항해해서 찾을 정도였음
- 하지만, 올해 극동러시아의 벙커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에 따른 여파가 관련 지역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극동러시아 지역 항만 전경>



자료: <http://shipandbunker.com>



- 벙커유 수요가 급감한 주요 요인으로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유가 급락을 지목할 수 있음
 - 벙커유는 정제 제품이기에 원유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임
 - 2014년 상반기까지 톤당 600 달러에 달하던 벙커유 가격은 같은 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100달러 대 까지 하락했음
 - 또한,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주목 받으면서 대기오염방지 대책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벙커유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음

<블라디보스토크 항만 벙커 유가 하락세>



자료: IAA PortNews, 2016

- 극동러시아 지역의 벙커유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블라디보스토크항의 경우,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벙커유 판매량이 전년도 동일기간 판매량의 1/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 -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벙커유 판매량은 총 22만 1,400톤이었으며, 전년도 동일기간의 판매량은 61만 9,000톤이었음
 - 2016년 7월까지의 판매량 중 16만 7,300톤은 HFO(고유황 연료유)인 것으로 나타남
- 또한, 러시아 나호트카 및 포시에트항의 벙커유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나호트카항의 경우,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량은 총 23만 5,000톤으로서 이는



전년도 동일기간 판매량(49만 8,000톤)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

- 포시에트항 역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량은 10만 3,400톤이었으나, 2016년에는 6만 8,500톤으로 감소했음

병커유는 세금 면제 대상으로 구분

- 현재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은 병커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음
- 심지어 일부 선박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위해 소량의 생수 구입 등으로 "허위 신고(pseudo-cargo calling)"를 해서 세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도 했음
- 통상적으로는 선박이 화물 수송을 위해 가장 가까운 종착 항만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소요되는 병커유에 대한 세금만 면제가 되며, 그 외 초과되는 부분은 세금을 지불해야함
- 하지만, 대부분의 선박은 예정된 노선(Loop)을 모두 항해하기에 충분한 병커유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짐
- 화물 수송용 선박에 대해 세금 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병커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

병커유 관련 업계 파산위기

- 병커유 수요 급감과 더불어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, 이어 작년부터 러시아 중앙 에너지 세관(Central Energy Customs)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병커유 판매에 대한 재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
- 재검사를 통해 "초과" 병커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
- 초과분에 대해 올해 부가되는 세금은 톤당 50 달러로, 작년(톤당 90달러)에 비해 감소함
-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톤당 세금은 평균 250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
- 'Russian Association of Marine and River Bunker Suppliers'사의 전무이사에 따르면, 이와 같은 일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파산 절차를 밟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함
-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, 예산 삭감 및 투자 환경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언급함



- 극동러시아 지역의 벙커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중앙 에너지 세관이 현재 이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언급했으며, 본 사항에 대해 중앙 에너지 세관 측에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
 - 또한, 이 같은 제재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벙커유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함
- 현재 극동러시아 벙커링 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타 국가의 인근 항만들은 수혜를 받고 있음
 - 2014년 1,750만 톤의 벙커유를 공급했지만, 2015년에는 15%나 감소한 1,480만 톤에 그쳤음
 - 반면, 극동러시아의 경쟁자인 싱가포르항의 경우, 같은 해에 4,000만 톤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,
 - 러시아 북서항만의 경쟁자인 로테르담항은 2,400만 톤 이상의 벙커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
- 올해 러시아 항만의 벙커유 수요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벙커링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벙커유가로 인해 벙커링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톤당 5~10 달러에 불과한 반면, 현재 러시아 중앙 세관이 부가하는 톤당 50 달러의 세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
- 극동러시아 지역 벙커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싱가포르로 비즈니스 대상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음
 - 최근 몇 달 동안 싱가포르의 벙커유 시장은 활성화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

자료: <http://en.portnews.ru/>(검색일: 2016년 7월 16일), <http://shipandbunker.com/>(검색일: 2016년 7월 18일)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물류동향

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, 4개의 신규 사업 유치 확정

- 극동개발공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총 2억 14백만 루블 규모의 신규계약 4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함
- 물류분야는 러시아 로컬 운송업체인 'TK Russkiye Transportnyye Linii'가 나호트카 지역에 물류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는 것임
 - 이를 통해 약 121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환경개선분야는 총 2개의 신규계약이 있었음
 - 'EcoTechPrim'사가 연해주 지역의 위험도 3-4단계에 해당하는 위험 폐기물 수집 및 처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
 - 'Zilservice'사가 파티잔스키(Partizanskiy) 지역에 연간 3만 톤 처리 용량의 쓰레기 수집과 재활용 처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장을 건설 할 예정임
- 생산분야에서는 'Torres'사가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및 휴지와 펄프류를 생산할 예정임
 - 'Torres'사는 우수리스크 지역의 자체 브랜드로 2개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매입하고 생산 제품은 러시아 및 해외로 수출 할 계획임
- 극동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96개의 기업들이 자유항 입주신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, 총 투자액은 1억 64백만 루블로 약 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음

자료: <http://logirus.ru> (검색일: 2016년 8월 3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